

24시간 내 '이민자 인권침해' 신고에 응답합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의 하루

권익보호과 김지연 팀장

인권침해조사단 최용석 팀장

인권침해조사단 최용석 팀장



지난 6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민자인권-권익팀'이 신설된 후 7월 31일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조사단은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하 수원청)에는 권익보호관 1명과 인권침해조사관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자리를 잡았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24시간 안에 움직이는 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09:00
"이민자사랑방에서 첫 상담이 시작됩니다"

3층 이민자사랑방. 권익보호관 김지연 팀장의 하루는 피해자나 관계자의 신고를 직접 받는 일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방문이나 전화로 들어오는 신고는 접수되는 즉시 사건 검토에 들어간다. 사건 접수 대장과 상담 대장에 내용을 기재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지체 없이 본부 이민자인권-권익팀에 보고한다. 신고자 상당수가 한국어가 서툴고, 먼 거리를 이동해 직접 방문 신고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다 보니 '1345 콜센터'를 통한 신고가 가장 많다. 인권침해조사관인 최용석 팀장과 장정우 계장은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24시간 내 현장조사에 나선다.

10:00
"신고 창구가 해로로이대응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는 창구가 통일돼 있지 않아 신고부터 구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인권침해 조사단이 생긴 뒤로는 "신고 창구가 일원화되고 구제 절차로 연계되는 과정도 체계적으로 바뀌어서 훨씬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최용석 팀장은 말한다. 수원청 관할 지역에서 인권침해 피해자는 계절근로자(E-8)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가장 많고, 유형으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흔하다. 작황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큰 농업의 특성도 안정적인 임금 지급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11:00
"오전에 점검대상을 고르고, 오후엔 현장으로"

매일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답은 늘 현장에 있다. 인권침해 조사단은 사건이 없는 날에도 예방 차원에서 최소 주 2회 현장 점검을 다닌다. 현장에서는 자주 언어 장벽을 마주한다. 이때는 통역인이나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사업장에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이 있으면 그를 통해 대화를 풀어가기도 한다. 면담을 시작할 때는 '외국인을 단속하는 출입국 직원'이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출입국 직원'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13:00

"고용주와 외국인을 분리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농장주(고용주)와 외국인을 철저히 분리한다. 최용석 팀장은 주로 고용주를, 장정우 계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한다. 면담에는 '인신매매식별지표'를 활용하는데, 이 역시 외국인 본인을 위한 절차임을 먼저 안내한다.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가해 사실이 확정된 게 아니다. 면담이 피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가해자로 지목된 쪽도 세심히 배려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에 '인신매매식별지표'를 사용하는 이유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고립된 외국인 피해자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 이 식별지표는 어느 기관에서 면담을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피해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15:00

"현장에서 마주치는 장벽들도 착착 해결"

간혹 자국의 글조차 읽지 못하거나 노안으로 문서를 읽기 어려운 외국인을 만나면 곤란할 때가 있다. 조사단이 스피커와 마이크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는 이유다. 고용주 쪽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한 번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식별지표'를 활용해 면담하겠다고 하니, 고용주가 '나를 지금 성범죄자로 보는 거냐'며 안성을 높인 적이 있어요. 저는 많이 당황했는데, 최용석 팀장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훌륭하게 상황을 정리하시더라고요."(장정우 계장)

저희의 중재로
당사자들 선에서
풀렸을 때
가장 보람 있습니다



17:00

"당사자들 선에서 풀렸을 때 가장 보람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안별로 수사기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진정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체류자격 부여 등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건 등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상정되기도 한다.

"폭언과 임금체불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고용주는 작업 중 의사소통과 문화 차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작업에 차질이 생기자 우발적으로 폭언한 것을 인정하고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했고, 외국인들도 상황을 이해한다며 민원을 취하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연계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저희가 잘 중재해서 당사자들 선에서 풀렸을 때 더 보람을 느낍니다."(장정우 계장)



18:00

"늦선 땅에서 애쓰는 이들 곁에 오노"

하루 업무를 정리하는 시간, 조사단의 책상 위에는 내일 방문할 농가 목록과 다음 상담 일정이 쌓인다. 신고 창구를 하나로 모으고, 24시간 안에 현장으로 달려가고, 관계기관과 손을 잡는 일. 그 촘촘한 절차 하나하나의 목적은 결국 하나, 늦선 땅에서 성실히 일하는 누군가의 오늘 하루가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

이민자 인권침해 신고, 복잡하지 않아요



❶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란?

지난 7월 31일 출범한 전국 통합 보호체계. 법무부 '이민자인권·권익팀'이 총괄하며,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외국인보호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된다.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조사,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까지 담당한다.



❷ 외국인 인권침해신고 전용창구란?

지난 5월 27일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설된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 20개 언어로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을 다국어 상담 사에게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한 달 만에 신고 건수가 월평균 22건에서 142건으로 약 6.4배 늘었다.



Q.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장정우 계장 현장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좋아서 이곳에 자리 잡고 삶을 꾸려나가는 외국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제가 단속보다 외국인의 국내 생활 안정을 위한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그런 분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합니다.

Q. 아직 신고를 망설이고 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지연 팀장 불이익을 받을까 봐 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고는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알려주시면 반드시 확인하고 돕겠습니다.



Q.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최용석 팀장 예전에는 출입국 관서마다 제각각이던 신고·조사 방식이 하나의 체계로 묶였습니다. 이제는 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외국인보호소의 조사관 100명이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훨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